

“광양만권 발전 3개 도시연합 필요하다”

전문가 105명 여론 조사...75% “연합 가능성 높다”

여수·순천·광양 통합효과 뛰어넘는 대안될지 관심

여수·순천·광양 등 광양만권 도시들의 연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 논의됐던 광양만권 도시통합이 각 도시별 반대여론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폭제 역할과 통합효과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광양만권 도시연합을 위한 비전과 전략’ 심포지엄에서 전문가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전문가 여론조사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도시연합 및 통합관련 국내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신뢰도는 95% 수준에 오차범위 ±9.6%로 응답률은 70.0%였다.

도시연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광양만권 도시연합 가능성을 분석한 전문가 집단의 설문 결과

가 단연 관심을 보였다. 도시통합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를 보면 우선 광양만권 도시연합 가능성이 75.2%로 매우 높게 분석됐다. 광양만권 3개도시 연합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향후 6~10년 이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56.2%로 가장 높았다.

광양만권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이 지닌 잠재력 평가를 묻는 질문에 풍부한 각종 자원과 자연환경(86.2%)을 최우선 잠재력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82.9%가 특화된 산업단지 및 시설의 경제성을 주목했고, 교통의 편리성(72.4%), 살기 좋은 지역이미지(70.7%), 사회·공간적 연계성(69.8%) 등이 뒤를 이었다.

광양만권의 도시연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심도시를 축으로 인접도시들 간 연합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응답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집단은 또 도시연합은 통합의 전 단계(65.2%)이며, 광양만권은 도시연합을 위한 여건을 확보

(76.2%)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양만권 도시연합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 반면 전남과 경남의 연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여수·순천·광양”의 도시연합 예상 시기에 대해 향후 6~10년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5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년 이내 32.4%, 16~20년이 9.5%, 21~25년과 26~30년(1.0%)의 순서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여수·순천·광양 도시연합 시기를 평균 8.3년 정도로 예상했다.

반면 하동·남해를 포함한 경남권과의 도시연합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향후 11~15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35.2%로 가장 많았다. 이들 전문가들은 하동과 남해까지 포함한 도시연합 가능시기에 평균 15.9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여수·순천·광양 도시연합이 가져올 잠재적 이익으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대도시권 경제화 이익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남권 중추도시 역할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효과가 72.4%로 뒤를 이었다.

김단규 여수상공회의소 고문은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제철 등이 들어선 광양만

권은 국내 대표 산업지역임과 동시에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지로 급 성장중인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이처럼 개발정책과 시행정 등 광양만권 도시발전을 위한 3개 도시간 협력과 제휴가 어느때보다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전문가들이 광양만권 도시연합 성공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 것과는 달리 실질적인 연합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연대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도시연합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각 도시별 시장과 시의회의원 등의 이해관계’를 (49.5%) 가장 높게 뽑았다. 이어 3개도시 지역주민들의 경쟁과 이해관계가 (39.0%)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제시된 도시연합 논의 주제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 및 의회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21.0%), 지역 내 전문가 그룹(17.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또는 관련 위원회가 연합논의 주체가 되어 한다는 답변은 1.9%로 가장 낮게 나타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올해 마지막 벼룩시장 열려요...7일 거북선공원



여수시가 지난날 여수거북선공원에 마련한 여수벼룩시장에서 시민들이 각종 중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모습.

올해 마지막 벼룩시장이 오는 7일 여수거북선공원에서 열린다.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개인 참가자는 1시간, 단체 참가자에게는 2시간이 배분된다.

판매 품목은 의류와 잡화, 도서, 가전제품 등 중고 생활용품으로 판매자가 가격을 직접 책정해 판매할 수 있다.

건전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물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 접수는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또는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608)로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여수벼룩시장은 동절기인 12월부터 휴장에 들어가 내년 4월부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다시 열린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수상인명구조 교육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에 배치된 신입인명구조대원들이 지난 30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수영장에서 수상인명구조 교육을 받고 있다.

GS칼텍스·법사랑연합회, 청소년 초청 문화나들이

GS칼텍스가 청소년 선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지난 31일 법무부 산하 법사랑 전남동부지역연합회와 함께 ‘법사랑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법사랑연합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법정 단체로 전남동부지역연합회는 각계각층에서 400명의 지역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문화나들이 행사는 청소년에 대한 단거기 선도활동을 넘어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선제적 범죄 예방을 통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후원을 위해 마련됐다.

법사랑동부연합회는 이날 다문화·탈북·결혼 가정 등 청소년 30여명을 초청해 회원들과의 일대일 고민상담 등 친밀한 대화시간을 비롯한 GS칼텍스 여수공장 견학 등을 통해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다.

특히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명성황후 20주년 기념 공연’을 함께 관람하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와 올바른 역사 의식을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명품 관광도시 여수 블로그도 명품이네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대상 수상

1000만 관광객이 여수시를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대상 수상했다.

여수시는 2일 “여수시가 직접 운영해 온 ‘여수관광 공식 블로그’가 지난 30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년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blog award)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블로그산업협회 주관한 이번 블로그 어워드에서 여수관광 공식 블로그(blog.naver.com/goystour)는 새롭고 독창적이면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브랜드와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블로그를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 공감·소통하는 활동에 가장 두각을 보이

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비공개로 모집된 블로그 평가단 100명과 전문가 10명이 부문별로 블로그의 디자인 및 UI, 콘텐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부문 18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힐링 여수야’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여수관광 공식 블로그는 그동안 관광 정보를 찾는 블로거들의 댓글과 공감에 대거 몰리면서 상방형 소통 등 커뮤니케이션 지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관계자는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밤바다와 해상케이블카 등 여수의 주요관광시설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블로그나 스마트폰 앱 홍보를 통해 여수가 가진 대표 관광상품 알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관광객 1300만명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는 여수시는 굵직한 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명품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9월 ‘2015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시상에서 ‘해양관광 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앞서 지난 7월 인터넷포퉁어의 올해 여름 인기 여행지 분석에서 제주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해수청, 청렴옴부즈맨 7명 위촉·정기회의 개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수산 행정을 본격화한다.

여수해양수산청은 2일 “투명하고 공정한 해양수산 행정을 위한 ‘2015년 청렴옴부즈맨 위촉 및 정기회의’를 지난 27일 여수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신인여수해수청은 이날 정기회의에 앞서 각 분야별 청렴옴부즈맨 전문위원 7인을 위

촉했으며, 선정된 전문위원들은 해수청 추진정책에 대한 감시·평가와 함께 부패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권고 등을 요구하는 맡는다.

이러한 정기회의에서는 2015년 여수해수청 반부패·청렴 세부추진사항 및 주요현안에 대한 사업설명과 청렴옴부즈맨 위원들의 평가·조언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렴위원으로 선정된 최상덕 전남대 교수는 “지역 주요산업인 수산업의 특성상 공·

고막의 폐기가 많지만 관련법상 산업폐물로 지정돼 어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골 폐기 등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복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렴옴부즈맨 실행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해양수산 발전을 모색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 산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지명	전화번호	지명	전화번호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영광군	351-1004	곡성군	362-8111
함평군	324-8111	구례군	782-4696
신안군	278-8111	나주시	335-5501(시·군)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무안군	452-8535	남원시	283-1540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진도군	543-0100	해남군	537-6767
완도군	554-6677	진도군	543-0100
영광군	351-1004	담양군	383-8116
함평군	324-8111	곡성군	362-8111
신안군	278-8111	구례군	782-4696
목포시	276-9200	나주시	335-5501(시·군)
무안군	452-8535	무안군	452-8535
영암군	471-1717	남원시	283-1540
진도군	543-0100	장흥군	863-8822
완도군	554-6677	해남군	537-6767
영광군	351-1004	담양군	383-8116
함평군	324-8111	곡성군	362-8111
신안군	278-8111	구례군	782-4696
목포시	276-9200	나주시	335-5501(시·군)
무안군	452-8535	무안군	452-8535
영암군	471-1717	남원시	283-1540
진도군	543-0100	장흥군	863-8822
완도군	554-6677	해남군	537-6767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